

마을마다 수돗물 쿵쿵 “신나요”

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본지 공동 인도불교 1차 지원 사업 결실



◇인도UP주메인뿌리나비간지 마을법당준공식이 거행됐다. (사진제공=재가연대).

UP주 3곳 학교, 법당, 공원 준공...500명 수계 10개마을 우물 관정, 주민 자발적 공사 참여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 본지 공동 교공원 준공, 보드가아 동계스와리등 10으로 진행된 인도불교 1차 지원사업이 개 마을에 핸드펌프를 설치하는 성과를 석가족 3개 마을 학교 및 법당 건립, 불

정도회 이사장 법륜스님과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 분과장을 비롯한 인도불교지원단은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지난해부터 1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던 인도 UP주 3곳의 석가족 마을 학교 및 법당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엔 준공된 메인뿌리 나비간지 및 칸노즈 바레뿌르 마을 법당과 불교공원, 학교는 마을의 대사가 행해지는 마을 회관과 불교 수행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상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건립됐다. 이 시설들은 인도불교 지원단이 건축재료만 지원했을 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지은 것이다. 특히 바레뿌르 마을의 학교이름은 지난해 인도교도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불교청년지도자 비쉬 시와르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비쉬 시와르 고등학교라고 지었다. 명상센터 소장 라미쉬 보드는 “마을 주민 전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다.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아마 하늘에서 비쉬 시와르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제 재가연대 NGO 지원분과장은 “1차 지원사업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예상했던 것보다 법당과 학교 건립이 잘 완공되어 기쁘다. 특히 동계스와리 10개 마을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인도불교지원사업단은 1차 지원대상 중 나머지 1곳인, 메인뿌리 마하마야 아카데미가 완공되는 올해 말 이후 1차 지원사업의 결과를 최종 평가한 뒤 2차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제2의 법화원, 중국에 한국얼 담는다

일산 장안사, 청도에 대규모 사찰 건립

경기 고양시 장안사주지 법진스님과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한국사찰을 짓는다. 중국 청도(청다오) 장안사는 지난달 산동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18일 석노인 공원 안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장안사는 청도 시내 중심부와 바닷가에 인접한 ‘석노인 관광단지’ 안에 사찰 부지 1천평을 확보하고 우선 160평에 대

해서만 건물공사에 들어갔다. 장안사는 중국정부가 사찰을 지어주는 대신 10년간의 토지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올해 9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기공식에는 한국측 법진스님과 주립산사 이선행 회주를 비롯 중국측 청도인민위원회 곡초탁 서기, 석노인관광원 이숙산 총경위와 청도 한국민속문화교류



센터의 황병희 사장, 청도 한국상회의의 조일환 부회장 등을 비롯 현지 교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진스님은 “비교적 교민들이 많은 청도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를 알리고,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 지역주민위한 건강강좌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은 현대백화점과 공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를 연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 101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정지천 원장의 무료특강은 28일과 3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무역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어 동대 강남한방병원장은 6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목, 13시30분)과 무역점 문

화센터(금 16시10분)에 ‘한방으로 풀어보는 가족건강 365일’을 주제로 한방문 화강좌를 개설한다. 강남한방병원 정지천 원장, 임성우 진료부장, 구병수 교육연구부장, 김동일 부인과의과장, 이승덕 김갑성 침구과장, 최인화 피부과장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료는 8만원. 문의 3416-9700. 한편 각종 성인병 통증질환 가능성질 환의 진단에 탁월한 한양방 종합한의원 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은 진료비중 불교신도와 각 종립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10%, 스님과 종립학교 교직원 20%의 본인부담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김원우기자

광주, 불교전문병원 6월 개원 의료재단도 설립 계획

스님과 불자들에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불교 전문병원이 6월 중순 문을 연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배치 등 개원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방부불교병원(원장 홍기표)은 가정 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3개 진료부서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번지에 위치

해 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2000여평의 규모로 세워진 방부불교병원은 불교인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승화시켜 사회복지와 인간애를 구현하자’라는 이념에 따라 불자들에게는 환인 혜택을, 일반인들에게는 자비인술을 베푸는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의 30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방부연합 의료기관’을 구성,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향후 방부연합 의료기관을 모태로 불교 의료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선대 불교학개회 출신인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은 “내 가족을 돌보는 정성으로 사랑이 가득한 불교병원, 병원 공동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영 기자

도봉산 도봉사 산사음악회

서울 도봉산 도봉사(주지 원명)는 6월 1일 오후 5시 30분 대웅전앞 특설무대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배유정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산사음악회는 가수 안치원과 자유, 신형원, 남진, 장미화, 문화유 임지훈, 문명희, 소리새, 순병희씨와 소프라노 이진희씨가 출연한다. 문의 02-954-1112 김원우 기자



믿음과 사랑으로 뭉친 네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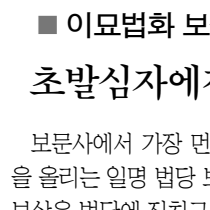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 보문사 신도 4인방

화성 보문사에는 주지 스님보다 보문사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신도 4인방이 있다. 주지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보문사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변함없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수행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는 보문사의 기둥들을 소개한다.



원 개선회 보살(61, 신도회장) 13년간 환경봉사, 지휘한 야전 사령관

13년간 보문사 신도관리와 재정을 도맡아 온 정신적 지주다. 버스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보문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며 경제 환경 봉사를 지휘하는 보문사 야전 사령관이다. 원 회장은 스님이 5년간 투병 생활을 할 때 산에서 몸이 좋다는 약초를 직접 캐다가 약을 맡겨 들인 정성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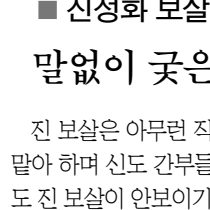
이묘범화 보살(57, 법당보살) 초발심자에겐 예절, 기도법까지 친절히

보문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 법당 청소를 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일명 법당 보살이다. 벌써 올해로 이 일을 한지 20년째다. 이 보살은 법당에 진치고 앉아 처음 사찰을 찾은 초발심자들에게 법당예절은 물론 의예절과 기도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염불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임정숙 보살(55, 운영회장) ‘삼보정제’ 서원, 절집 재정 내집처럼

임 보살도 3년째 운영회장을 맡고 있지만 남편 이복재씨(60)도 거사회 부회장으로 보문사 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올 정도. 임 보살은 23년 전 보문사 신도가 되면서 불자로 살아가는 한 ‘삼보정제’ 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공양 준비, 연등 등 무엇이라도 근검절약하며 사찰의 재정이나 물건을 아낀다.



진정화 보살(50) 말없이 굶은일 도맡아 하는 숨은 일꾼

진 보살은 아무런 직책과 감투가 없다. 하지만 말없이 굶은 일도 도맡아 하며 신도 간부들의 일을 돕는 보문사 쏘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진 보살이 안보이더라도 하면 간부들은 찾노라고 소란을 피운다. 그만큼 절에서 하는 일이면 어느 것하든 진 보살의 손을 안거치는 것이 없다. 빨래, 설거지, 청소, 공양 준비 등. 율덕도 수행이라는 것이 진 보살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추천의 말 월암스님 보문사 주지

우리 보문사에서는 스님들이 사찰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듬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저 수행에만 전념할 수

네 보살 덕에 수행에만 전념 지요. 특히 신도회장을 비롯한 네 보살들이 결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에 주변 포교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도심포교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고 비가 있을때마다 네 보살이 곁에 있기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기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 ◆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에 **태이링**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사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6월 2째주, 4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계시는 구천스님. 아침에는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져서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함을 전해주고 그 이외의 많은 신도들이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이한 영적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 후, 하루만에 그 포교원에는 100명 이상의 신도(평소에는 10명 미만의 신도)들이 스님의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법회의 끝날 시간에 스님은 파동명상법회를 하게되었는데 파동명상이 진행되는 중에 그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신도들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과 색다른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의 한 아주머니는 어찌 부근에서 무엇인가 강하게 몸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날 그 아주머니는 스님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평소 건강이 나빠 가족들에게 평생을 아첨받은 한 번도 못해주었는데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다고 했다.